

# 품질과 신뢰로 오리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비상하는 모란식품

충북지원 품질평가사 장경호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2년 동안 국내산만을 원료로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생산해 오고 있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소재한 (주)모란식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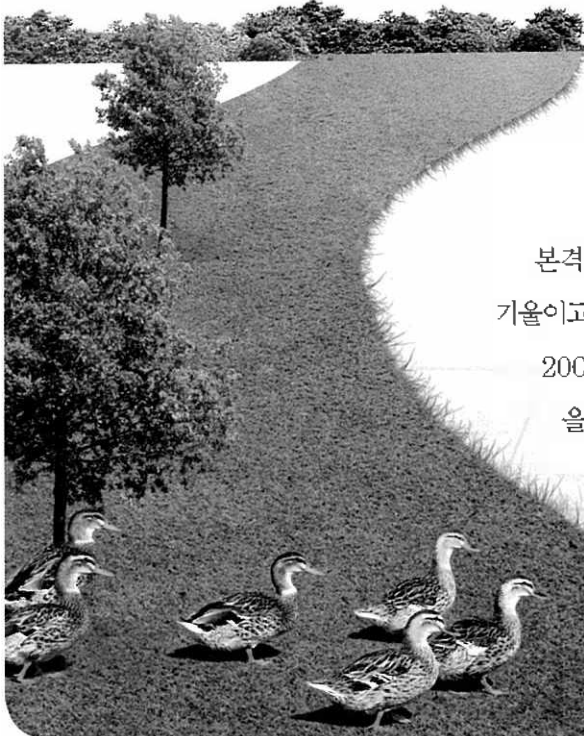
## 성장

(주)모란식품은 1991년 모란유통을 설립한 이래 2002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가축계열화사업을 시작했다. 최초 12개 계열농가를 시작으로 현재는 종오리 농가 11개소, 육용오리 농가 100개소에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으며, 월간 95만 수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부화장에서 100%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간 약 800만 수의 육용오리를 생산하고 있다.

(주)모란식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입장은 2004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HACCP을 지정받아 일평균 35,000수의 축산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명품 오리고기 '셀덕'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셀덕은 기능성 오리고기로 '천연 아미노산 제조 셀레늄 사료를 급여해 생산된 오리고기'를 뜻하며 타 오리고기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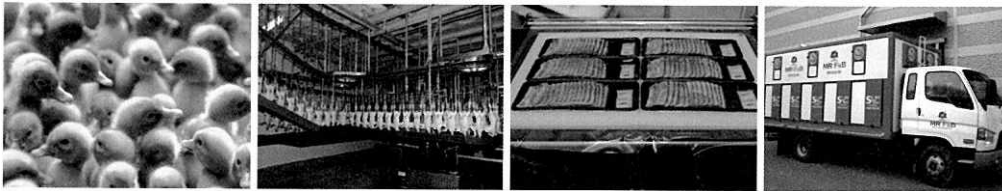
2008년에 완공한 육가공장은 같은 해에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에서 HACCP을 지정받아 일평균 12,000수의 오리를 가공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및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오리산업의 성장과 소비량증가 추세에 힘입어 두 번째 육가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 생산체계

모든 병아리는 체리밸리와 그리프트 PS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농가입식단계에서 병아리 혈통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아리의 품질 투명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농가에서는 병아리, 종오리의 주령 및 농가명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사양관리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모란식품에서 생산되는 오리의 20%는 친환경사육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육농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체 부화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병아리 생산을 위하여 2012년 10월 중 부화장 HACCP 지정을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16  
17

## CEO의 각오



축산업은 농촌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무엇보다도 식량 안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식량생산은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모란식품은 농촌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우리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오리고기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모란식품은 기업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품질과 신뢰로 기억되는 대한민국 오리산업 대표기업으로 남겠습니다. **득침**

